

## 6. 환경을 주심(창1:14-19)

오늘은 넷째 날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그것들로 하여금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주관하게 하셨고 광명들로 하여금 땅에 비추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늘을 쳐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했는가? 생물이 살려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도 환경이 필요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도 환경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물이 드러남으로 거기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이 나왔다는 말을 했다. 이미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창조된 생명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란다. 생명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다. 환경과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환경과 같이 살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만물들에게 분배하는 위임을 받았다. 다스린다는 말은 분배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처럼 총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제왕들의 통치와 달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통치다. 말씀을 분배해 주는 통치, 생명을 분배해 주는 통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행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세상의 통치도 자세히 보면 통치자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폭정은 폭군이 자기의 어떠함을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폭군을 만나면 폭군의 심성을 백성들이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괴롭고 어려운 것이다. 폭군이 총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먹이기 때문이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사상과 정신을 먹었다. 독일 국민의 85% 정도가 루터교 교인이었는데 그들이 다 히틀러에게 먹혀서 히틀러의 정책에 찬동을 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포악한 정치에 참여하고 찬성까지 했겠는가. 그 술을 먹어 놓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원래 나치당은 몇 명 안됐는데 그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커져서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히틀러 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퍼뜨려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다. 좋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좋은 사람의 어떤 것을 분배받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같이 살면 좋은 것이다.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 살면 그 향기가 나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좋은 향기를 맡게 된다.

그러나 나쁜 냄새가 있는 곳에 살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냄새를 분배받게 된다. 독가스를 마시게 된 것은 독가스를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육백 만의 유대인이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에 의해 죽을 때 눈에 안보이는 가스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 잠자듯이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인생은 불행해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만물은 올바른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분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다. 독가스를 남에게 먹이려다가 반대로 자기가 독가스를 먹게 생긴 것이다.

생명은 참 이상한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면 내 환경이 나를 돕는데 내가 죽으면 환경이 나를 썩게 만든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으나 나쁘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내 생명력이 좋으면 환경은 나를 돕는 것이 되지만 내 생명력이 잘못되어 버리면 환경은 나를 억압하고 죽이는 것이 된다. 산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 있으면 산소가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숨이 끊어지자마자 산소는 즉시 나를 썩게 만든다. 그러니 환경 탓만 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살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죽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산소가 생명이 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산소가 썩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썩지 않게 하려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 있는 생명체일 때는 환경이 우리를 돕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위치를 이탈해서 잘못되면 오히려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이 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니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다. 왜 두려운가? 두렵다고 한 것은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결국 아담은 가시덤불 속에 살게 되고 길이 없어서 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필경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환경이 그렇게 돼 버린 것이다. 전부 환경 탓인 것처럼 되고 만 것이다. 불행하다는 사람을 보면 전부 환경 탓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 안하고 환경이 이래서, 환경이 저래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해 줄 텐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자기들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괴롭다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하니 이렇게 하지 나무들이 말을 하겠는가, 풀이 말을 하겠는가. 나무나 풀의 마음을 말로 하면 “사람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해 주면 좋겠는데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는 말이다. 그들은 하급에 속한 존재니까 할 수 없이 복종을 해야 되지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이 나온다. 인간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탄식하는 것과 같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부모가 맨날 술이나 먹고 쌈질이나 하면 밑에 자녀들이 그것을 분배받게 된다. 그러니 아이들은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주정뱅이가 아니면 좋겠는데, 저렇게 싸움쟁이가 아니면 좋겠는데…….’ 라며 탄식한다는 뜻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다. 원래는 그들을 허무한 데 굴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세상이 잘못 돌아가서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다. 박운봉 형제가 사랑방에 올려 놓은 글을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In christ’ 라고 되어 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정말 복된 말이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 이 아니면 바울 서신은 별것 아니다.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이 바뀌진다. 생명의 영이 와서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술도 취하는 것이 술 나쁨이라고 한다. 막걸리 먹고 취한 것과 소주 먹고 취한 것, 맥주 먹고 취한 것과 양주 먹고 취한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싼 술을

먹는다는 것이다. 비싼 술은 씹빡하게 취하고 씹빡하게 깨는데 싼 술은 먹을 때도 짹짹하고 꿀 때도 머리가 멍하다고 한다. 그래서 비싼 술을 먹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인간은 어떠했겠는가. 기분 좋은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위임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안된다. 무슨 일로 침울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갖다 줘도 안되고 저것을 갖다 줘도 안된다. 무엇을 줘도 만족이 없다. 감기가 들어서 열이 펄펄 끓으면 아이들은 짜증을 부린다. 이렇게 해 줘도 안되고 저렇게 해 줘도 안된다. 업어줘도 안되고 먹을 것을 주고 장난감을 줘도 안된다. 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속에서 그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 무엇이 와도 만족이 없다. 자기 문제가 있으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자기 문제가 많으니 하나님 말씀도 안들린다. 자기 생각만 차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안듣는다. 이상한 일이다. 뚫린 귀니까 들으면 될 텐데 안듣는다. 한심한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수행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들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트집을 잡았다.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저런 일을 하면 저렇게 트집을 잡았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인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꼬투리 잡으려고 사는 사람같이 어찌하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하겠는가.

우리 교회에 좋은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간증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살려 주려고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간증이 시원찮을수록 살리려고 더 후원을 하는데 정말 좋은 풍습이다.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살아난다. 어떤 데서는 잘하는 것도 트집을 잡아서 어찌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덜 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50점 밖에 안되는데 뒤로 보면 100점이다. 여럿이 어울려서 100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교통이다. 교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로 완성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다른 데는 이런 세계가 없다. 어찌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법이 작용한다. 세상에 있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작용한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고 난 후부터는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돕고 싶어진다. 더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신성한 위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지만 아담은 자기에게 갇혀서 이 신성한 위임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면 갇힌 것이 없어지니까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남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행동을 보면 아직 멀었다.” 고 한다. 그런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우리 교회 와서 40년이 됐어도 똑같다. 안변한다. 말이라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돌아서면 안해도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여기 와서 한 마디 좋은 말 하고 돌아서서는 잘못해도 괜찮다. 어차피 잘못할 사람이면 여기 와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하면 좋지 않은가. 세상에 어디 이것을 연습할 데가 있는가. 세상에는 없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된다. 말을 못하는 것이 병신이지 말만 잘하는데 왜 병신인가.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는 좋다. 다음에는 어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말을 하면 나는 좋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발전하고 사람이 되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다. 10년 후에 봐도 그 모양이고 20년 후에 봐도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라도 그런 소리를 하면 그만큼 인생이 손해본다. 한 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면 그만큼 인생이 이익을 본다.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할 데가 없다. 그래야 신성한 위임을 수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안보이는 것들이다. 로또 복권 같은 것이 아니라 눈에 안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보이는 것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형제를 보고 조그마해도 크다고 해야 되지 큰 것을 보고도 작다고 하면 어떻게 눈에 안보이는 것을 크게 만들어 내겠는가. 잘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눈에 안보이는 것들이다. 현미경으로 보아도 안보이는 작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크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자기는 형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크게 해 주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는가.

모세가 왜 귀중하고 바울이 왜 귀중한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했기 때문이다.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있다 내려왔는데 40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다. 거기서 잠자다 온 것이 아니다. 뻑뻑한 구름과 나팔소리와 천둥소리가 났다는 말은 그곳이 아주 무서운 곳이었다는 뜻이다. 그런 무서운 곳에

있다 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붙잡으셨다.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했는데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고 “주여 뉘시 오니이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지극히 작은 소리인데도 크게 들리는 사람이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는 없고 아주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서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안된다. 맨날 비판만 하고 좋은 것도 깎아 내리게 된다. 생명의 영의 법이 오면 해방되어서 만사가 좋으니까 다 좋게 보인다. 내가 행복하면 남이 다 좋게 보이지만 내가 불행하면 다 나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인다. 심지어는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꼬라지가 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고 하게 되니까 더욱 불행해진다.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도 없고 수행할 수도 없는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사탄이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과일이 이런 과일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너 위에는 더 없으니까 네가 최고인 줄 알라.’ 는 뜻이다. 그렇게 되었으니 무엇을 본들 만족하겠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법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만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두막 집이라도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벨탑을 쌓아놓고도 불행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롬8:1~4참). 영을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이 영은 어떤 영인가? 옛날에 나는 이것을 몰라서 영을 받아 보려고 애를 썼다. 어떤 영이 있는지 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나에게 영발이 없었다. 다른 사람은 잘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돼서 영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버렸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에서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영이라고 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것이다. 육신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까, 어떤 것이 육신이고 어떤 것이 영인가? 이것을 가르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 육신은 타락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이탈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타락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살코기로서의 육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육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육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육신이라는 말은 잘못 알면 오해하기 쉽다. 사람들은 육체를 극복하려고 수도를 하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한다. 일부러 잠을 안자는 극기훈련을 하기도 한다. 절에 가도 수양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다. 육체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육체 때문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말이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아담을 따라 산다는 말이다. 아담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다. 수도원에 가서 매일 씻고 마음을 닦고 산다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씻고 닦아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하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담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담을 따라 사는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격이다. 우리는 아주 쉽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딘 줄 알았으니까 어디로 가면 연합이 되는 줄 안다.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연합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다. 거기 사는 것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영 안에 살려고 애를 써 보았다. 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나도 영 안에 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영을 모시고 살아 보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성령만 생각할까 하며 노력했다. 방언을 하면 되는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지, 오만 생각을 다 해 보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것은 육에 속한 생활이다. 꿈을 꾸면 예수님을 보고 눈만 감아도 예수님이 보여도

그것은 육에 속한 생활이지 영에 속한 생활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 보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육이 없으면 사람이 못사는데 거기서 영만 골라내려고 했으니 되겠는가.

그런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예수와 연합된 자리에서 율법이 없어진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리에 오면 율법이 무효가 되어 버린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분의 인격과 내가 하나 되면 율법이 무효가 된다.

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많다 해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몰라도 산다.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법이 소용없는 것이다. 교통법규가 아무리 있어도 운전을 해야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법으로 살아야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법으로 살면 된다. 법이 있다고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군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고 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다.” 고 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떤 분을 놓고 사자와 어린양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다. 사자와 어린양은 너무 차이가 많다. 사자는 제왕이고 어린양은 밥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다.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받았는데 앞뒤 좌우로 인봉을 해 놓아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서 심히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이니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또 눈을 들어 보니 어린양이 있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기에 얼마나 큰 장군인가 하고 돌아보니 어린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이다.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으니까 아주 생생하다는 말이다. 생생하게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세계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라이온(lion)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봉한 책을 떼신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어린양이 떼는 책이다. 인봉을 떼었



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열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자와 어린양은 동전의 앞과 뒤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는데 다윗의 뿌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겠는가. 그런데 돌아 보니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다. 어린양인 것이다.

육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모든 사람, 네피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신도 되고 인간도 되고 싶은 사람, 이것이 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때 멋도 모르고 신기가 없어서 문제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신기가 있었으면 나는 망했을 것이다. 목회를 하러 나가 보니 제일 필요한 것이 신기였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놈의 신기가 없었다. 아무리 쥐어짜도 안나왔다. 기도를 해도 안되고 부흥회에 참석해도 안되고 아무리 짜고 짜도 신기가 나오지 않았다. 보리를 비틀어 짜면 기름이 나오겠는가. 참깨를 비틀든지 콩을 비틀든지 해야 기름이 나오지 보리 같은 나를 비틀어 보니 기름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나는 신기가 없어서 안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신기가 있는 것이 잘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망한 것이다. 괴물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신기가 있으면 그것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순수하게 사람이어야 하고 신은 순수하게 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면, 신도 반이고 인간도 반이면 괴물이지 무어겠는가. 그것을 찾고 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한 것은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네피림이 된다는 말이다. 반신반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길을 따르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라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해서 받는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참 사람의 영이다. 참 사람은 참 사람대로, 콩은 콩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비틀면 무엇이 나온다. 비틀어서 나온 것, 그것이 기름이다. 그것이 영이다. 영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름이다. 성경에서 기름부음은 영을 부었다는 뜻이다.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말 것도 없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지 수양을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영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있는 사람이

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 안에 있겠는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는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만 굳혀도 대박이 난 것이다.

다른 데 가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해 보라. 그것이 잘 될 줄 아는가. 안된다.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안된다. 평생 고생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만 해방되어도 여러분은 대박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누가 환경을 통하여 축복으로 위임을 수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것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공기를 주신 것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복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원망이 생긴다.

이번에 정한철 형제 때문에 교회에 큰 기쁨이 되었다. 한철이 보다 나쁜 환경은 없다. 방금 들은 것을 잊어버린다. 얼마나 나쁜 환경인가. 그런데 그 나쁜 환경에서 영광이 드러난다. 나는 정한철 형제가 혼자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치고 책상을 두드리며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생각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혼자 책상을 놓고 해 보라. 테이프를 틀어놓고 한철이처럼 되는가 해 보라. 안된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어떤 환경도 쓸모없는 환경이 없다. 다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 얼마나 풍부한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수로 내가 새 것이 되겠는가. 얼마나 수양을 해서 새 것이 되겠는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새 것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새 것은 될 수 없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다.” 라는 말은 안돼서 하는 말이지 잘되면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고 하게 된다. 나에게 결코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재수없는 환경이었다. 세상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재수없는 환경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아주 좋게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지금 감사하려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감사가 된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아무 것도 감사할 일이 없다. 인생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것은 전부 그런 것들이지 잘 돼서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시와 연한을 주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우리가 사시와 연한이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달빛도 비쳐주고 햇빛도 비쳐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는가, 인공으로 만들어 내겠는가. 우리의 환경도 잘 생각해 보면,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항상 원망한다. 자기가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 놓아도 원망이 되고 저것을 갖다 놓아도 원망이 된다. 축복으로 위임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좋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것뿐이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해 보려고 수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에 오는 환경을 잘 이용해 보려고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버리고 수양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법륜스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즉문즉답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양을 많이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양을 안해도 그렇게 답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더 잘하게 된다. 즉문즉답 한마디를 듣고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인데 한 마디 들었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은 고생하고 얻은 것이 아니다. 공으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나는 이것이 은혜위에 은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다. 책에 써놓았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보존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와야,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거기서 한 치라도 떠나면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만다. 구속의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를 떠나 버리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된다. 참된 만족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밖에서는 아무 것도 안된다. 진짜 안된다. 고생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고생을 안해 본 사람은 모르지만 고생해 본 사람은 다 안다. 나는 많이 해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도로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딱 하나뿐이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다.

‘성령 안에’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 안에가 잘 되는가. 성령을 알아야 ‘성령 안에’ 가 되지 안된다. ‘하나님 안에’ 도 마찬가지다. 말은 맞는 말인데 잘 안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는 된다. 제일 쉽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죽은 것을 우리는 보았다. 아직도 못본 사람이 있는가. 다 보았다. 그러니 이 보다 쉬운 것이 없다. 성령도 하나님도 안보이지만 이것은 보인다. 확실하게, 지울 수 없게, 사진찍을 수 있게 보이니까 너무 쉽다. 가장 쉬운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을 축복으로 수행하려면, “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